사경꿀.ZIP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5년 7월
vol.3

CHUNGNAM
SOCIAL ECONOMY
CENTER MAGAZINE

theme

혁신과 협업이 숨쉬는 플랫폼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연대
힘쎈 충남을 만드는 착한 소비의 힘!
상생
사회적경제로, 충남의 내일이 자라납니다.
사회적경제로 더욱 힘차게! 힘쎈 충남
호혜
오늘 소비를 바꾸면 내일의 충남도 달라집니다.
힘쎈 충남, 사회적경제의 힘으로 더 강하게
공유
충남경제진흥원

CONTENTS

04 **센터소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비전·전략·조직

06 **기획기사**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식

14 **정책동향**
새로운 정부에서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성

18 **센터 사업 톺아보기**
기획운영팀 _ 충남 사회적경제 금융에 '신협의 따뜻한 손길'을 더하다
성장지원팀 _ 2025 다시 만난 충남 사회적경제
기반조성팀 _ 진로체험, 사회적경제를 만나다
마을기업팀 _ 서울 도심 속 충남 마을기업이 떴다!

26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합니다**
로컬의 가능성을 시장으로 연결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로컬몬스터'
_로컬몬스터 이재영 대표

청양, 그리고 충남을 세계와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_사자산영농조합법인 이남훈 대표

청양을 향한 소박한 선물
_이플아토 허지혜 대표

44 **사회적경제 이-슈 칼럼**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과 신협의 역할
_손석조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장

48 **2025 하반기 센터사업 안내**

발행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발행인 이상영
발행일 2025년 7월 31일
주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31, 1층
홈페이지 www.cnse.kr
연락처 041-456-8120
디자인 (주)디자인사과나무

비전

함께하는사회적경제,
힘쎈충남의 동력

목표

사회적경제의 전문화를 통한 '성과 고도화' +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으로 맞춤형 '가치창출' + 더 넓고 보다 깊은 '소통과 협력 활성화'

추진 전략

- 사회적경제 전문성 강화
-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 소통·협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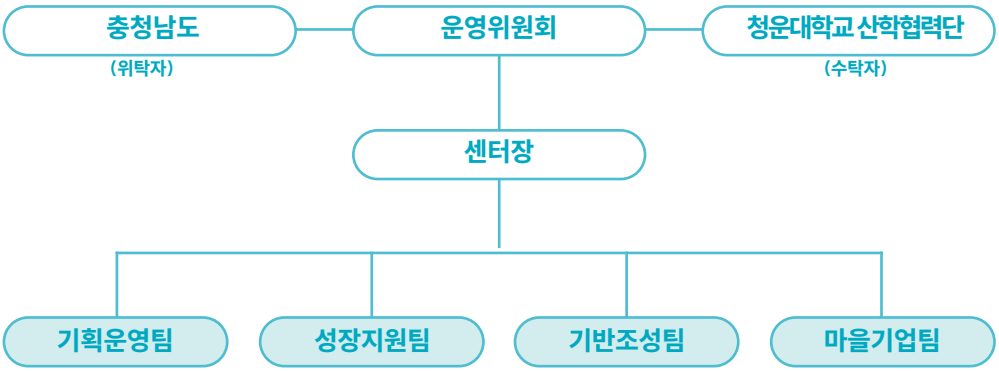
1 사회적경제 전문성 강화

2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3 소통·협력 활성화

4 사회적경제 진입 지원

조직도



조직별 업무

기획운영팀(4명)
041)456-8120

- 센터 사업기획 및 예산 총괄
- 센터운영및관리/홍보
- 각종위원회관리
- 사회적경제 어울림 행사(기념행사)
-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및 제안
- 후원사업운영
- 사회적경제홍보활성화
- 사회적경제금융활성화
- 임팩트투자생태계조성

성장지원팀(4명)
041)456-8130

- 사회적경제 상생 협력사업
- 사회적경제경영컨설팅
- 사회적경제 경영지원 플랫폼
- 사회적경제기업 종합 안내서 제공
- 혁신타운 입주기업 성장지원

기반조성팀(3명)
041)456-8126

- 시-군생태계조성지원
- 사회적경제교육운영
- 사회성과지표관리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 혁신타운 입주기업 성장지원

마을기업팀(3명)
041)456-8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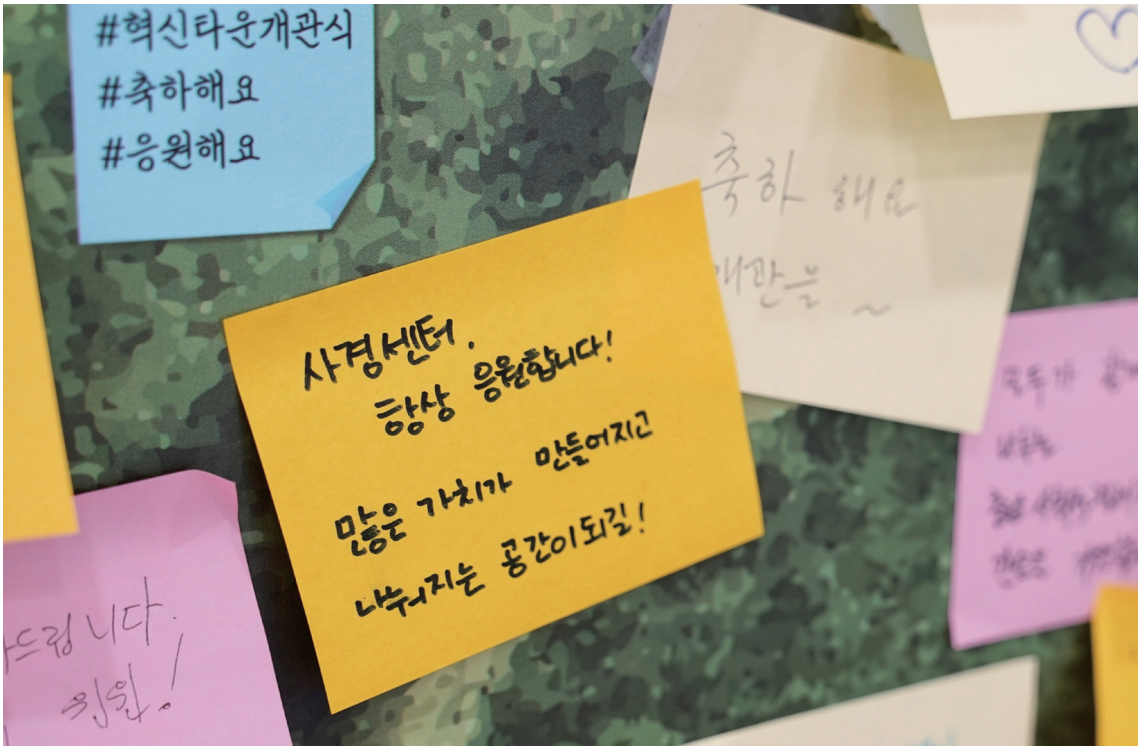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지원
- 마을기업 DB관리 및 현장지원
- 마을기업판로지원
- 사회적경제 진입 교육 플랫폼 운영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터전'
혁신과 협업이 숨쉬는 '플랫폼'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식

글 장희주 에디터

사회적경제 기업은 이윤 추구를 넘어,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공유하고,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기업들이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나누며 더 큰 사회적·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거점이 오랜 준비 끝에 문을 열었다. **청양에 둥지를 튼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개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포문을 열고 앞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자, 혁신과 협업이 숨쉬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청양에서, 사회적경제의 꽃을 피우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6월 10일 개관하며, 농촌형 사회적경제를 이끄는 거점으로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개관식에는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정광섭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김돈곤 청양군수, 김찬배 충남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혁신타운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외에도 약 300여 명의 내외빈과 지역 주민이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식전 대북공연으로 웅장하게 막을 연 개관식은 국민의례, 경과 보고와 비전 소개 영상 상영에 이어 기념사·환영사·축사 순으로 이어지며 공식 일정을 진행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기념사에서 "청양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혁신타운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입주 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남도는 유망한 기업이 있다면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은 물론,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청양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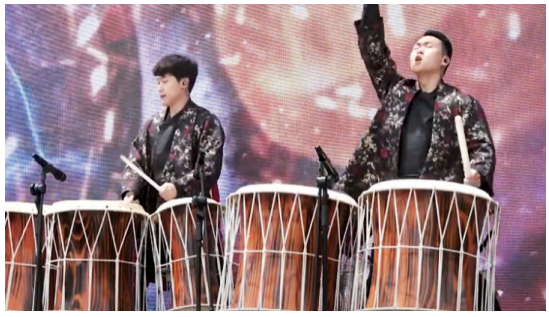
김돈곤 청양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 추구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이 청양에 둥지를 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청양군이 농촌형 사회적경제 모델로 혁신타운을 유치하기까지 5년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이제 이곳에서 작은 기업들이 지역과 상생하며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한다. 침체를 벗어나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거듭나겠다"며 군민들과 함께 자부심을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축사에 나선 김찬배 충남경제진흥원장은 "이곳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협업과 혁신이 숨 쉬는 플랫폼"이라며 "교육과 성장이 함께하는 터전이자, 지역 공동체의 희망을 실현해

나갈 중심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이 공간에서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나누며, 더 큰 사회적·공동체적 가치를 만들어갈 것이라 믿는다"며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 가치 중심의 경제 모델이다. 오늘 개관식은 그 철학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며 진흥원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화 퍼포먼스는 사회적경제의 성장 가능성과 지역 공동체의 희망을 상징하는 특별한 세리머니로 꾸며졌다. 내빈들은 화분에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통해, 청양에서 사회적경제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기념 식수장으로 이동해 기념 식수 행사를 진행했다. 기념 식수엔 혁신타운의 개관을 기념하는 마음과 이 공간이 오랫동안 지역과 함께 뿌리 내기리를 바라는 참가자들의 소망을 담았다.

기념식 이후에는 내빈들이 함께 혁신타운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사회적협동조합인 '다원세상'을 비롯해 영상제작실, 교육장, 회의실, 박람회장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이 공간에서 펼쳐질 사회적경제 활동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전통 사물놀이와 뮤지컬 갈라쇼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사회적경제의 감각을 담은 다양한 행사

개관식과 함께 혁신타운 곳곳에서는 '사회적경제 팝업콘텐츠', '공공구매 박람회', '판매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사회적경제 팝업콘텐츠는 '디자인 콘텐츠', '패션&잡화&뷰티' 등 파트별로 구성돼 관람객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각 부스에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생활용품, 천연 원료를 사용한 비누와 화장품, 리사이클&업사이클 패션 소품 등 지속가능한 가치를 담은 제품들을 전시했다.

사회적경제 기업 공공구매 박람회에서는 충남 도내 30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해, 150여 개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현장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이 1:1 상담을 진행하며, 판로 확대와 협력 가능성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가 기업은 교육·문화 기획 기업, 생활소비재 기업, 식품가공 기업, 용역·서비스 기업 등 분야별로 나뉘어 구성돼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소개했다.

야외에서 진행된 판매전 '달빛마켓'에서는 청양의 농특산물부터 핸드메이드 공예품, 로컬 브랜드 먹거리까지 다채로운 제품들이 소개돼, 사회적경제의 따뜻한 가치와 실용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됐다.

한편,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성화 포럼'도 함께 열려 혁신타운의 향후 방향성과 잠재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혁신타운이 충청남도 내 사회적경제 혁신 거점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그리고 전국의 유사 운영 사례와 공간 혁신 사례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포럼은 충남연구원 이홍택 박사의 기조연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제시'로 시작됐으며,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최인남 팀장, 루트임팩트 김상우 COO, 춘천사회혁신센터 안나리 실장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주제 발표를 하며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이후에는 한국사회경제연대 하재찬 이사를 좌장으로 한, 발표자들과 함께하는 토론이 이어졌고 이를 통해 혁신타운이 지역과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제언이 오갔다.

혁신타운의 비전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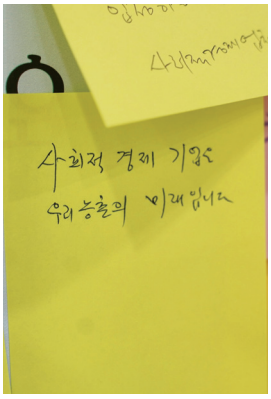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조성된 도내 최초의 사회적경제 전용 거점 시설이다. 이곳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에서부터 교육, 입주기업 간 관계망 형성, 컨설팅까지 기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한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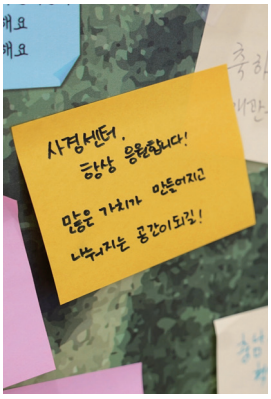
혁신타운 내부에는 시제품 제작실, 전시 판매장, 회의실, 영상제작실, 교육실, 입주기업 전용 사무공간, 카페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특히 34개소 규모의 입주기업 전용 사무공간이 있다. 이 외에도 등록기업 49개소도 혁신타운의 공용 공간을 활용할 예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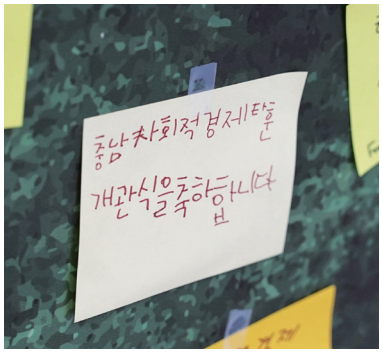
한편,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박경주 팀장은 "아직 채워야 할 부분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혁신타운이 청양 지역에서도 사랑받고, 충남 사회적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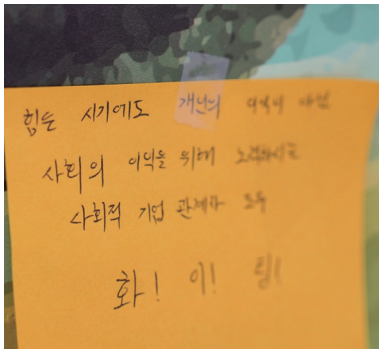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사람과 기업 그리고 지역이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 누군가의 첫 창업이 시작되는 자리이자,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새로운 터전이 될 혁신타운.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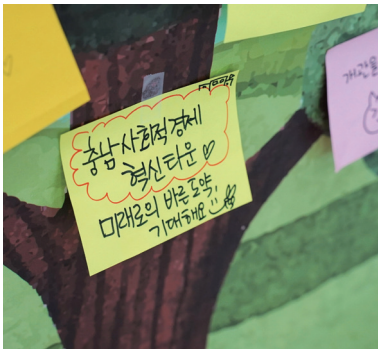
"혁신타운이
청양 지역에서도 사랑받고,
충남 사회적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성

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5년 6월 4일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고조와 정책변화에 대한 사회적경제인들의 관심과 기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글은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조와 관련하여 21대 대선에서의 공약자료집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은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풀뿌리 지역경제를 조성하겠습니다"라는 명제를 설정하고 그 실천을 위한 목표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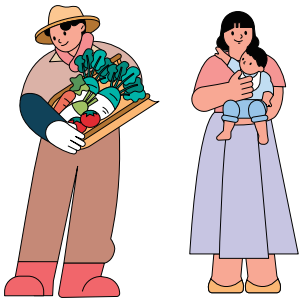
첫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둘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재정 부담 완화방안 마련
셋째,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약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경제·산업·중소기업 관련 공약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경제성장」 편에서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진짜성장론 5대 전략 중 다섯 번째 항목인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풀뿌리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행목표 달성을 위한 각각의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1.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인들의 숙원 중 최우선과제라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천명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제19대 국회부터 제20대, 제21대를 거쳐 제22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인의 염원으로 민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재정부담 완화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합 조정 및 지원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통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지역경제 육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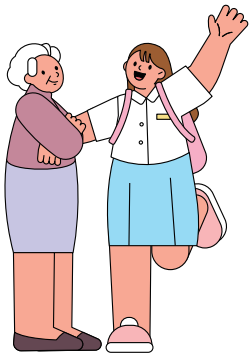
2.

사회적경제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지원체계수립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 부담의 문제를 완화하여 '공정과 상생'을 통한 진짜 성장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3.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난 대선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멸 위기대응 등을 위하여 마을기업의 육성 필요성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정치적 변동에 따른 논의의 중단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법 제정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농업 및 농촌의 유지 및 발전, 지역소멸의 위기대응,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강조되고 있는 마을기업에 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존속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스스로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역의 생존과 더 나아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에 반영되었던 내용을 새로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지난 6월 16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여 대선 주요 공약과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추가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8월 20일 전후로 국정과제 제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이기에 지난 대선에서 천명되었던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이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빈약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활동과 지원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고, 사회적경제인 모두가 연대와 협력,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대안경제활동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생태계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인들의 노력은 향후 제도적 보장과 정책을 통한 행정 등과의 협력 확대로 지역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제의 정립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통한 변화와 혁신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경제인이 힘을 모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획운영팀

충남 사회적경제 금융에 ‘신협의 따뜻한 손길’을 더하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협중앙회와 충청남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지원 협력사업 덕분인데요. 지난 5월 22일,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 현장과 이후 진행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시 손잡은 충남도와 신협, 더 단단해진 협력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체결된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양측은 한 단계 진전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식 현장에는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 (주)아이퀘스트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박종복 충남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과 신협의 사회적금융을 실무 총괄하는 박규희 행복나눔부문장이 직접 참여해 사업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협 얼마에요’ 무상 제공… 회계 걱정 끝!

이번 사업의 핵심은 신협이 개발한 협동조합 전용 세무회계 프로그램 ‘신협 얼마에요’를 충남 내 50개 사회적경제기업에 5년간 무상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과 회계 기초 교육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의 운영주체인 (주)아이퀘스트에서 직접 세무지식이 부족한 조합들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매달 회계처리에 애먹었는데, 시스템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 현장 참여 조합 관계자 인터뷰

마케팅까지 지원? '라이프 온' 앱 소개

단순히 회계 시스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협 라이프 온' 앱을 통해 주거래 협동조합의 마케팅과 유통까지 지원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앱은 조합이 생산한 물품을 직거래 장터 형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회적경제기업 입장에서는 홍보 + 판로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 라이프온 회원가입 바로가기

이미 검증된 성과…
2020년 1차 협약 이후의 영향

이번 협약은 사실 전혀 새로운 시도는 아닙니다. 2020년 체결된 1차 협약을 통해 이미 도내 122개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85억 4천만 원의 자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상생협력 대출' 제도를 통해 충남도는 2.0%, 신협은 최대 1.2%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물적 자원 제공을 넘어 회계역량 강화, 마케팅 플랫폼 제공, 그리고 '신협얼마에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장기적인 금융지원까지.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신협의 진정성 있는 의지가 협약식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일관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금융 관련 민관 협력 사례가 더 많이 확산되어, 충남의 사회적경제가 기초부터 더욱 탄탄하게 성장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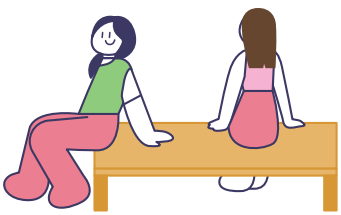
성장지원팀

2025 다시 만난 충남 사회적경제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팝업전시

충남 사회적경제 기업이 만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1층에서 열렸습니다.

전시는 2025년 6월 10일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 개관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이자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방문객들이 소통하며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꾸려졌습니다.



한편, 전시를 시작했던 혁신타운 개관식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별한 체험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칠갑산 친환경 비누 캐기' 행사입니다. 청양을 대표하는 칠갑산을 닮은 무려 150kg의 거대한 비누가 등장했는데요, 이 비누는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인 '주식회사 이플아토'에서 제작했습니다. 친환경과 지역 가치를 담은 이 특별한 비누는 방문객들의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원하는 만큼의 비누를 직접 덜어내며, 사회적경제와 일상의 연결성을 재미있고 의미있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팝업전시에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기업은 물론, 도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총 60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전시는 ▲탄소중립(제로웨이스트) ▲먹거리 ▲교육과 돌봄 ▲관광과 문화 ▲건축과 청소 ▲패션·잡화·뷰티 ▲디자인과 콘텐츠 총 7개 분야로 구성되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시는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보는 것이 아닌, 사회적경제가 사람과 지역, 자원을 어떻게 연결하며 우리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혁신타운을 찾아 함께 경험하며, 여러분도 사회적경제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변화의 이야기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반조성팀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회적경제를 만나다

사회적경제주간 '임팩트 루키 진로탐색 데이' 후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25년 사회적경제주간을 맞아, 청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뜻깊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름하여 '임팩트 루키 진로탐색 데이'.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의 세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청양군에서,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진로교육 모델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청양고등학교 1학년 학생 3개 반, 총 57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와 직업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행사는 오전 9시,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내 대·중회의장, 교육실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에는 역사관광기업, 농산물 유통기업, 청양지역 사회적기업의 대표 3인이 참여해 자신들의 창업 이야기와 일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지닌 역할을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GOOD!

GOOD

강사 중심의 일방향 강의가 아닌 '토크 콘서트'로 구성되어, 자연스럽고 유쾌한 질의응답이 이뤄지면서 현장 분위기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어진 체험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주간을 맞아 특별히 준비된 부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손으로 만들고, 눈으로 보고, 직접 조작하고 느끼며 오감을 활용한 진로탐색에 나섰습니다. 자투리 원단을 활용한 나만의 인형과 키링 만들기, 허브와 다육이로 완성하는 미니 테라리움, 드론 조종 체험을 통한 기술직업 이해, 사회적경제 포토 프레임을 활용한 4컷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체험 후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너무 재미있었어요.", "드론을 직접 조종해 볼 줄 몰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직업을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니 더 기억에 남아요."

교사들 또한 높은 만족을 드러냈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생소한 주제를 아이들이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진로교육이라면 매년 해도 좋겠어요."

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왜 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지고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며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하루의 체험이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일 = 돈'이라는 익숙한 공식을 넘어, '일 = 가치'라는 새로운 시선을 전해주었습니다. 청양의 한 학교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는 어쩌면, 충남 사회적경제의 단단한 뿌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사회적경제가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그리고 오늘의 이 만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을기업팀

서울 도심 속 충남 마을기업이 떴다!

S-메트로컬마켓 후기

초여름 기운이 완연하던 5월의 어느 평일 오후, 서울 합정역 지하에서는 특별한 로컬 마켓이 열렸습니다. 스쳐 지나가기 쉬운 일상 속 공간이 따뜻한 마켓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5월 19~20일, 이틀간 열린 'S-메트로컬마켓'을 통해 충청남도의 마을기업 세 곳과 서울 시민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남 마을기업의 판로 확대와 도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자 기획되었으며, 마켓 공간에는 각 기업이 직접 자리를 꾸미고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보고 맛보며, 로컬의 가치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참가한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은 당진에서 고령 농촌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로 전통 한과·장류 및 체험 상품을 개발해 농가 소득과 전통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업입니다.

토종 생태자원을 활용해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공동체 회복과 도시민 체험휴양공간 제공, 농산물 가공·판매·유통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서산시의 영농조합법인 서친숲도 마켓을 빛내주었습니다.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유통·판매를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천안시의 영농조합법인 태학산녹색마을도 함께하였습니다.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은 한과, 쌀조청, 매실발효액, 서리태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먹거리를 선보였고, 서친숲은 생표고버섯, 표고버섯으로 만든 전통장과 조청 등 건강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태학산녹색마을은 호두명과, 직접 재배한 오이와 더치커피를 소개하여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식 행사가 상시 운영되었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신 시민들께는 제로웨이스트 상품이 리워드로 제공되어 소비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특히 마을기업 제품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구조 덕분에, 제품에 담긴 진정성과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 생산품을 도심 한복판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시민 여러분께도 새로운 소비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마을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향한 의미 있는 시도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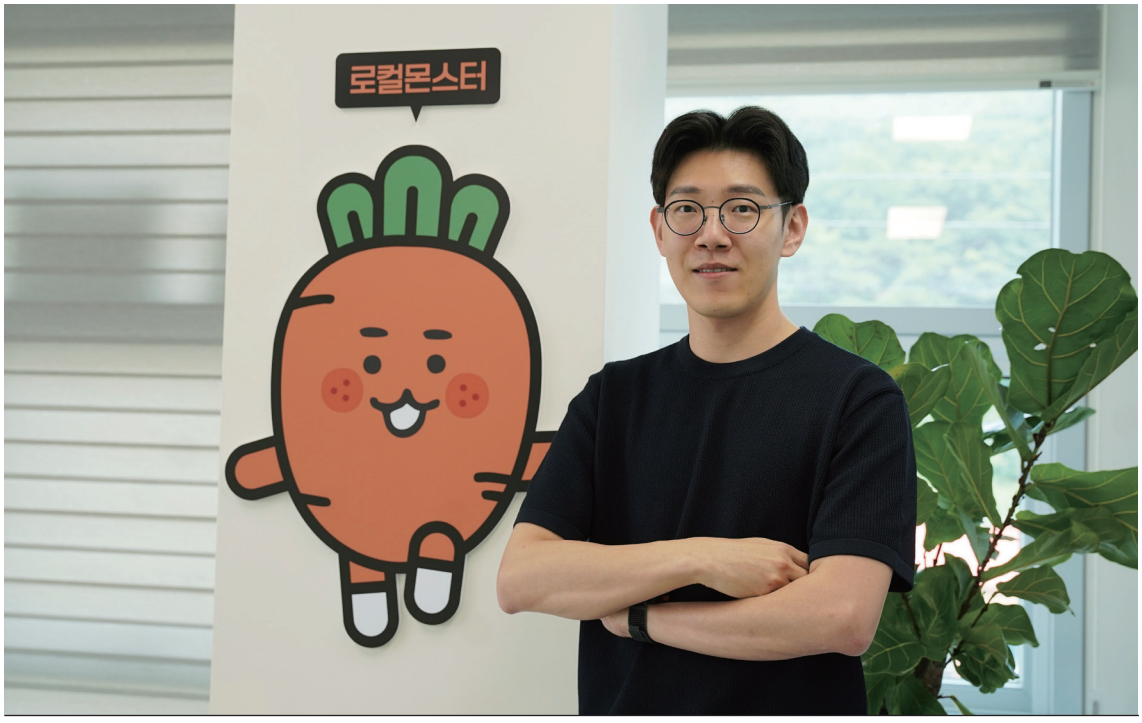
'S-메트로컬마켓 '은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 충남의 전통과 정성이 서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이 만남은 지역과 도시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로컬의 가능성을 시장으로 연결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로컬몬스터'

로컬몬스터 이재영 대표

글 장희주 에디터

외지에서 사회생활을 이어온 이재영 대표는 20대 후반, 고향 청양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그저 익숙한 곳으로의 귀향이었지만, 다시 시작된 청양에서의 삶 속에서 그는 지역이 품고 있는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다. 그 가능성은 청양이라는 지역에 대한 진심, 그리고 시장의 언어를 빠르게 이해하는 감각과 맞물려 로컬 비즈니스의 성장 파트너 '로컬몬스터'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 기업으로서, 청양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공동체의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로컬몬스터는 어떤 기업인가요?

로컬몬스터는 쉽게 말해 '로컬 비즈니스의 성장 파트너'를 자처하고 있어요. 지역에는 눈에 보이는 자원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자원도 참 많아요. 청양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이런 자원을 활용해 보려는 시도는 많지만, 대부분 정책 사업 중심이다 보니 사업이 끝나면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지역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수익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걸 체감했죠.

과거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아주 작은 단위이더라도 고객 한 사람에게서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정말 세세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청양에 내려와 보니, 지역에 정말 매력적인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방식이 너무 단순하거나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 자원을 발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찾아 수익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사회적기업'이라는 형태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과거 직장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던 경험이 큰 영향을 줬어요. 당시 티맵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사내 벤처팀에서 교통 약자를 위한 기능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맡았었죠.

음식점이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오래된 건물이라 휠체어 진입이 어렵다든지, 좌식 테이블만 있는 경우 등은 교통 약자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를 모았어요. 빠른 길만 안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돌아가더라도 더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알려주는 기능도 꼭 필요하더라고요.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과정을 통해 제 주변을 낯설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자연스러운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겐 불편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거죠. 주변에 교통 약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위한 접근과 서비스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접하게 됐죠. 이후로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기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됐어요.

창업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창업 초기에는 지역 자원을 직접 발굴하며, 저희가 직접 '플레이어'로 뛰는 데 집중했어요.

청양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이 여럿 있는데요.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잘 팔리지 않아 공장이 멈춰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이건 제품력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딩'과 '판로'의 문제라는 판단이 들었고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죠.

창업 초기에 로컬몬스터에 공간을 내주셨던 할머

니께서 직접 만드신 국내산 참기름, 고추기름, 고추씨기름을 섞은 수제 기름을 저희가 브랜드화 해 판매하기도 했어요. 소비자 반응도 좋았고, 수익성도 꽤 괜찮았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유통이 어려운 조합이더라고요. 결국 전량 환불을 진행했고, 연구개발비까지 손해를 보게 됐어요. 꽤 큰 타격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지역 자원과 기업을 돕는 역할이 더 우리에게 맞는 방향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시스트 역할에 집중하게 됐고, 전환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외지 청년들을 청양에 유입하고, 그들이 지역과 연결되도록 돕는 일이었죠. 실제로 지금도 청양에서 자리를 잡고 잘 활동하고 있는 청년 창업팀들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청양에서 '한달창업 in 청양군' 프로젝트를 운영했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렌터카, 무료 숙식, 창업 지원금 500만 원까지 제공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참여한 팀 중 한 곳이 바로 '어쩌다로컬협동조합'이에요.

그 팀이 청양이라는 낯선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책임감도 있었고, 저희 역시 진심으로 사업 아이템을 함께 발굴하고 싶어서 정말 많이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기반을 마련하면서, 지금의 '찰리와고추빵공장'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하게 됐어요.

당시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거의 매일 이야기 나누고 지내다 보니,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에는 서로 떨어지기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청양에 남게 되었고, 그중 찰리와고추빵공장 팀은 여전히 청양에 머무르며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열 명이 훌쩍 넘는 청년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작은 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청년 팀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드문 일이죠.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저희가 4년째 협력하고 있는 '퐁당청양' 같은 사업의 목표 자체가 외지 청년들이 지역에 들어와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분명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꼭 반가운 일만은 아닐 수 있더라고요. "나도 이곳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외지에서 왔다는 이유로 혜택을 왜 받지?"라는 시선도 있었고, 실제로 민원을 겪은 적도 있어요. 그런 갈등을 겪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많이 배웠죠. 결국은 '지역민을 사업 안으로 함께 끌어들여야 하는구나', '공감대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깊이 느꼈어요.

초창기에는 자금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창문 틀에 에어컨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는 공간에서 일한 적도 있어요. 겨울이면 너무 추워서 휴지로 틈을 막으며 지냈고요. 어떤 분이 무료로 공

간을 내어주셔서 1년 가까이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 뒤로는 월세가 10만 원대 초반인 아주 작은 공간에서 지낸 적도 있어요. 그런 공간들이 열악하게 느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하나 큰 선물처럼 다가왔어요. 그렇게 걸어오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입주하게 됐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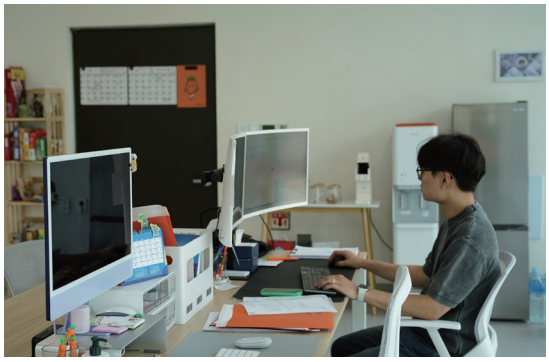
혁신타운 입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건물이 들어서기 전부터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특히 저는 혁신타운 준비위원회 초기 멤버로 참여하면서,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정말 좋았던 점은, 사무실에만 갇혀 있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스타트업과 교류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었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공간에 어떤 로망을 갖고 있는지', '어떤 환경이 창의력과 동기를 자극하는지'에 대해 계속 사례를 공유하면서 의견을 냈죠.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어떤 사업이 돌아가고 어떻게 활발하게 운영될 지까지 미리 구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드렸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 로컬몬스터가 첫 번째 입주기업이 됐습니다. 입주 후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고객을 초대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무실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외부 손님을 모시는 게 늘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고객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다 보니, 저희도 자신 있게 초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무실뿐만 아니라, 회의실, 공용 공간 등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해서 업무 효율도 높아졌고요.

무엇보다 공공 프로젝트 운영할 때 훨씬 편리해졌어요. 예를 들어, 올해 진행한 '제4회 퐁당청양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를 혁신타운 개관식과 연계해 개최했는데, 사무실 바로 아래층에서 대회를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공간이 쾌적하다 보니 참가자나 관계자들의 만족도도 높았고요.



혁신타운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입주할 기업들과 협업해서 공동 사업을 활발히 펼쳐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 공간이 살아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공간 안에서 실제로 생산적인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이나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이가 둘이라 그런지 육아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육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워크숍도 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활기찬 커뮤니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조용한 사무실이 아니라, 지역민도 편하게 들려서 화장실도 쓰고, 카페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약간은 '시끄러운' 혁신타운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역에서 지속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사실 사회적경제 분야가 지난 몇 년간 꽤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이 축소되면서 많은 기업이 문을 닫거나 휴업 상태로 전환됐죠.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던 기업들이 걸러지고 사회적 목적에 진심인 곳만 남았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가 건강하게 자리 잡으려면, 단순히 지원만 바라는 분위기보다 실제로 소비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상품과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창업가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단순히 지역 자원과 아이템을 억지로 결합하기보다는, '시장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꿈이 궁금해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최근에 일이 몰리면서 직원들이 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전반적인 회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함께 보내는 울타리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내 삶을 지탱해주는 진짜 공동체 같은 회사, 그런 로컬몬스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로컬몬스터

대표자	이재영
업종	디자인/교육/공공 프로젝트
주소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321~324호
홈페이지	www.localmonster.kr

청양, 그리고 충남을 세계와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사자산영농조합법인 이남훈 대표

글 김진리 에디터

사자산 마을은 2012년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관광객 대상의 체험형 휴양 마을이었다.
운영이 어려웠던 이곳을 맡아 관리하게 되면서 사자산 마을과 이남훈 대표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후 사자산 마을은 주민과 함께 점차 성장해 법인을 설립했다.
마을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이를 가공하여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까지 진출해 지역에 가치와 이익을 안기고 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청양을,
더 넓게는 충남을 세계와 연결한 고리가 되었다.

고비를 마주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온 이남훈 대표의 소양과 끈기 덕분이다. 그는 내내 소탈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임했다. 그는 사자산 마을이 자리한 청양, 그리고 이곳을 품고 있는 충남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또 그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었다.

원래 청양 출신이 아니라고 하셨죠? 귀촌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전에는 서울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 생각했죠. 이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서울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청양으로 왔어요. 여기서 3개월 정도 사니까 그때부터 몸이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사자산 마을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청양에 와서 농사를 해볼까 하고 준비하다 보니 농사는 너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귀촌하기 전에 투잡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유통일도 했었어요. 청양 YMCA 활동을 하며 제 배경을 알고 함께 지낸 분들이 사자산 마을을 소개해줬어요.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체험마을의 목적에 맞게 숙박 같은 체험 프로그램에 매진했는데, 이게 3년 정도 해보니 적자도 생기고 한계가 보였어요. 음식 판매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고 산골짜기에 있다 보니 차량 진입도 어렵고요. 이대로는 나 하나 먹고살기도 힘들겠다 해서 마을 추진 위원과 귀농·귀촌인을 모아서 법인을 설립하고 유통을 시작해보자 결심했어요.

법인 설립 후엔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사자산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을 조금씩이지만 직접 판매하는 정도였는데, 법인 설립 후에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과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가공품을 만들게 된 건, 농어촌 관련 공사나 지자체가 농민을 상대로 6차 산업에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한창 밀어붙일 때였어요. 지금까지 농사만 짓던 분들이 유통을 바로 시작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고생해서 수확한 농작물이 창고나 하우스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장터나

행사장에 다니면서 조금씩이나마 팔기도 했지만, 그걸로는 어렵죠. 우리가 판매해 드리자 해서 가공과 유통을 시작했어요. 사자산도 1차 농산물 판매로는 수익을 내기 힘드니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 같은 걸 OEM으로 만들어 팔았어요. 마침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10억 단위까지. 그런데 코로나 유행이 지나고 점점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경쟁자가 많아서 국내 온라인 시장이 너무 과열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젠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려 보자는 마음으로 2020년부터 아마존 입점을 목표로 수출을 해보기로 한 거죠.

목표 달성은 되었나요? 아마존 입점까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장벽이 높더라고요. HACCP(식품 안전 관리 인증)과 FSVP(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인증 받은 공장이 있어야 하고… 과정이 말도 못해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몇 년간 쏟아 부은 노력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자,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계속 준비했어요. 모든 인증을 받고 재작년부터 청양의 특산품인 맥문동과 구기자를 아마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고춧가루를 입점 시켜서 판매할 예정이고요. 또 나라별로 필요한 인증이 달라요. 중동으로 보내려면 할랄과 비건 인증 같은 게 필요한데, 이번엔 FSSC22000이라는 국제 식품 안전 관리 기준 최상위 등급 승인을 받아서 그 과정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최상위 등급이라니,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축하드립니다.

FSSC22000 인증받았을 때 보람이 컸어요. '이거 내가 진짜 잘해냈다.' 싶더라고요. 즐거웠어요. 식품으로 아마존에 입점 시킨 곳이 많지 않아요. 국제 인증 같은 입점 준비 과정을 직접 한다고 하면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보통은 컨설턴트나 에이전시를 끼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어려운데, 결국 우리는, 우리가 직접 다 해냈으니까요. 딱 승인이 떨어졌을 때 그 성취감. 아마존 온라인 판매를 하니까 다음 단계로는 일반 수출을 목표로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세종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 갔다가 이렇게 인터뷰하러 온 거예요.

지금 사자산영농조합법인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마을기업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가요?

처음에 저희가 가공 제품을 만들었던 곳은 공장이라고 하기에는 자그마한 공간이었어요. 방앗간처럼요. 식품 안전 인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부족했죠. 그런데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지원을 받으면서 덕분에 설비 일부를 세팅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가 직접 부딪히며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지역 안에서 다른 사회적경제 기업을 많이 만나는데 그 기업의 수출을 대행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을기업으로 거듭났다니까요? 사업계획서조차도 잘 못 쓰는 분들도 많거든요. 작게는 서류 작성도 도와드리고, 중국 쪽으로 일부 수출도 보내드리고,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청양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있다면 박람회든 어디든 같이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마을기업의 가치라고 생각하죠.

충남의 좋은 제품을 알리고 더 너른 곳으로 내보낼 기회를 만드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함께 상생을 이뤄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대표님이 청양에 꼭 필요한 존재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웃음) 그런데 지역 상황이 안타까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 아마존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건 구기자와 맥문동인데요. 지금은 생산농가가 거의 없어요. 청양의 인구가 급감하기도 했고 기후 환경도 달라졌고요. 사업 대상 지역을 청양에서 충남으로 확장하려고 해요. 파트너쉽과 네트워크를 더 넓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자체나 지역 지원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농민에게 지원되는 건 농기계나 물품 지원

같은 단순한 보조사업, 행정뿐이지 그 이상의 구조상 지원은 없어 보여요. 청양에 좋은 농산물, 가공품이 많거든요. 그런 걸 경쟁력 있게 내보일 기회가 자꾸 없어지는 거죠. 인구도 없는데, 기회도 사라지고 있어요.

충남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거 외에 이 어려움을 타파할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마을에 사람을 모으는 일도 하고 있죠.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이름으로 한 달 반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그 프로그램에서 만난 참가자 중 네 분이 지금 청양으로 전입했어요. 귀촌한 거죠. 그리고 그중 두 분이 우리 법인의 직원이에요. 제가 직접 빈집도 구해서 거기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분들 말고도 또 귀촌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또 충남도립대 학생들과 지역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멘토로서 잘 키워보려고요. 저번에 업무차 해외에 갔을 때도 청년들과 함께 갔어요. 수출은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청양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모으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난 봄,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입주하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접근성이 좋아졌어요.국제무역센터라는 이름으로 바이어 미팅 장소로 잘 쓰고 있고요. 또 수출을 원하고 그 노하우가 궁금한 기업이 있다면 컨설팅과 멘토링하는 장소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로 온 뒤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미국으로 고춧가루 수출도 시작하게 됐네요.

사자산영농조합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로컬 매장을 직접 운영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제품의 국내 판매는 농산물 매장에 입점 시키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품은 보통 시니어 분들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시니어 층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하니까 직접 매장을 내려고 해요. 우리 직원들이 다 재능이 많아요. 외식 사업 전문가도 있고 주조사도 있고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제품도 판매하는 그런 로컬 매장을 상상해요. 청년들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을 거고요. 같이 할 수 있는 청년이 있다면 동참시켜서 함께 하고, 독립해서 음식점이나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코칭도 해주려고요. 물론 비용은 안 받고. 그런 친구들을 지역에 남아 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자산영농조합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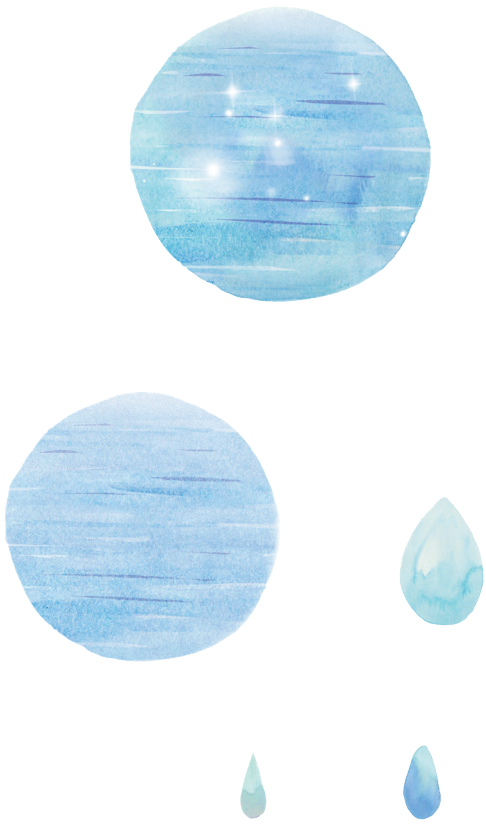
대표자	이남훈
업종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주소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307~8호
스토어	smartstore.naver.com/sajasan

청양을 향한 소박한 선물

이플아토 허지혜 대표

글 김진리 에디터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1층에 여름의 열기를 식히고 갈증을 풀 곳이 갓 오픈했다.
바로 사회적기업 이플아토가 운영하는 카페다. 이 너른 공간을 구석구석 살피면,
이곳이 어떻게 쓰이길 바라는지 깊이 궁리해 매만진 태가 난다.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청양의 농산물을 재료로 손수 만든 비누, 캔들, 디퓨저 같은 아로마 제품이었다.
이 땅과 쓰는 이에게 무해한 제품을 만드는 일.
다양성을 포용하고 동료가 된 여성을 북돋아 이플아토를 함께 빚어가는 일.
혁신타운에 자리잡고 토대를 만들어 갈 허지혜 대표를 만났다.



기업명인 이플아토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말로 '이플'은 '소박하다', '청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토'는 '선물'이에요. 이플아토에서 함께 일하는 순박한 이주 여성들, 우리가 만드는 제품, 청양 자연의 청순함. 정리하면 소박한 선물이란 뜻이에요. 우리와 연관된 모든 것에 다 걸맞은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번에 'EPL'이라는 약어로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해보기도 했어요. Earth, People, Love.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 삶을 생각해 만든 홈케어 제품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을 만들고 생산방식이나 패키지도 환경친화적으로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환경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 문제들이 환경을 등한시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사는 이 동네, 청양이 맑고 깨끗하면 좋겠어요. 아침볕에 눈을 떴을 때나 저녁의 하늘의 색깔 하며… 진짜 예쁘거든요. 이대로, 너무 좋아요. 이걸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으면 그거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좁게는 내가 사는 공간, 이 지역, 넓게는 지구 전역. 내게 영향을 끼치는 범위의 자연을 해치지 않는 일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파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이플아토의 시작이 궁금해요. 언제 처음 활동하시기 시작했나요?

6년 정도 되었네요. 작은 공방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오랫동안 일했는데, 어린이집을 하다 보면 행정상의 이유로 평가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하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결국,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어린이집은 접게 됐어요.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 아이들 돌보며 손으로 작은 것들을 만드는 재주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방을 열어 비누를 만들었어요. 어린이집

에서 만난 많은 아이가 그랬지만, 제 아이도 아토피와 천식을 갖고 있어요. EMeffective Micro-organisms 발효액, 유노하나라고 부르는 유황과 황토. 처음엔 이 세 가지 천연 재료만 넣고 비누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청양에서 나는 농산물을 재료로 만든다는 내용을 보았어요.

우리 비누의 메인이 청양의 특산품인 표고버섯, 맥문동, 구기자예요. 사실 농산물로 비누 만들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요. 귀농한 젊은 부부가 표고버섯 농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먼저 표고버섯으로 비누를 만들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표고버섯 비누로 유명해지면 그때 재료비를 달라고 하면서 값도 안 받으셨어요.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런 제안으로 본격 시작하게 된 게 농산물 비누예요.

지역에서 신뢰감을 잘 쌓아 두신 덕분인 것 같아요.

연결이 잘 되었죠. 만들어 쓰다 보니 농산물만큼 좋은 재료가 없어요. 먹어도 좋고, 발라도 좋아요. 지금은 청양의 사회적 농장, 자활 기업, 로컬 푸드 직매장 세 군데에서 재료를 가지고 와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안 맞을 때도 있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요. 지역에 꼭 필요한 곳과 협업하고 있어요.

기업 소개를 보니 크게 두 가지 소셜미션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지역의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기업이라고요.

이플아토는 여성가족부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었어요. 이주 여성, 경력 단절 여성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여성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려고 해요. 제가 어린이집 그만두고 다문화 센터에서 1년간 부모와 아이들을 교육하며 일했는데, 거기서 만난 이주여성분들과 지금 동료로 같이 일하고 있어요. 모국에서는 재능을 발휘해 열심히 일했던 분들인데, 한국에 와서는 사회에 진출해서 일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플아토의 직원 중 한 분은 국립병원 간호사 출신이에요. 직장 다니던 분도 여럿이고요. 그래서 이플아토에서 다시 일을 시작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죠.

함께 일해보니 어떠신가요?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매니저님들한테 저는 맨날 혼나요. 공간 어지르고 어수선하게 한다고요. (웃음) 함께 일한 지가 어느덧 3년인데요. 이제 다들 업무가 능숙해지셨어요. 제가 없이도 일을 잘 굴려나갈 정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자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들도 다 공부해서 취득 하셨어요.

6월 혁신타운에 카페도 오픈하셨는데 어떠세요?

돈도 없는데 입찰을 넣었어요. (웃음) 또 덜컥 낙찰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 매니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좋으냐고 물었더니 "매일 벌잖아요. 만 원이라도 벌 수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수입이 들쑥날쑥했는데 이제 고정 수입이 생기게 됐으니까요. 이 공간에 이플아토의 제품만 소개하지는 않아요. 소셜 미션을 가진 다른 회사 제품도 소개하기도 해요. 주변에 큰 카페가 없다 보니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동네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카페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하는거네요.

앞으로 청양에서 발전되어야 할 콘텐츠는 자연, 문화, 관광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카페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용도가 될 넓고 편한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여기를 관광객들에게 예쁘게 선보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이플아토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는데요.

이플아토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두레라고 불리는 주민 사업체에 속해있기도 해요. 청양의 여러 주민, 기업들과 관광 콘텐츠를 함께 개발해요. '주주총회'라고 이름 붙인 전통주 체험부터 시작해서 비건 투어, 발효 투어, 매콤 투어, 성지 혜윰 투어 등을 하고 있어요. 지역 농가,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지역 공간을 소개하면서 투어를 진행해요. 구기자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1박 2일 구기자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요. 지난 5월에 진행을 마쳤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청양에 별것이 없을 거라 여기고 큰 기대 없이 오셔서 놀라고 가실 정도예

요. 구기자의 매력에 푹 빠져서 가시죠. 구기자로 비누도 만들고, 족욕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요. 비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구기자만으로도 충분히 생활 속에서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투어였어요. 이걸 시작으로 청양을 알리는 관광기업으로 거듭나고 싶어요.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고민하고 있나요?

올해 차 세트를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까지 주력했던 쪽은 아로마 케어, 홈 케어 위주였는데요. 먹거리를 새롭게 기획하고 있어요. MZ세대를 겨냥해서 블렌딩 티를 만들어보려고요. 테스트도 해봤는데 맛있게 잘 나왔어요. 하반기에 혁신타운 카페에 소개될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꼭 오셔서 맛보세요. 기가 막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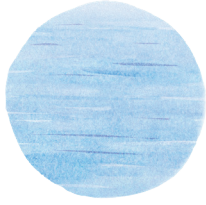
지치실 때는 없으세요?

수입이 없을 때 진짜 지치죠. 개인 통장은 마이너스고. 몸으로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사실 그것도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로 생각해요. 우리는 진짜 긍정적이거든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차 한잔하면서 훌훌 털고 그래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곧고 단정한 성품을 지니신 게 느껴져요. 아프고 지치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을 할 수도 있는데도 그러지 않으시네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사실 힘들죠. 같이 일하는 분들과 서로 마음을 돌보고 채우며 보내고 있어요. 제가 힘들면 좋아하는 음식도 해다주세요. "오늘은 제가 월남쌈 할게요."(웃음) 마음이 너무 고맙죠.

일부러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돈이 없으면 구해다 쓰고 열심히 일해서 채우면 되죠. 나쁜 짓, 사기만 안 치면 돼요. 우리 직원들, 또 우리 가족에게 부끄럽지만 않으면 돼요. 골방에 틀어박혀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어요. 움직여야, 행동으로 옮겨야만 해결되는 거거든요. 매니저님들도 힘들면 가끔 넋두리하실 때가 있죠. "아무도 안 만들고 관심 갖지도 않는데 이걸 계속 만들어야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해줘요. "아무도 안 만드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아요?" 하고요.



이플아토

대표자	허지혜
업종	제조 서비스
주소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1층 카페
스토어	smartstore.naver.com/eepleato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과 신협의 역할

손석조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장

1. 신용협동조합은 금융협동조합, 한국 사회적 금융의 태동 원조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함)은 금융편익을 얻기 위해 조합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금융협동조합이다. 한국 신협은 1960년 5월 1일 (부산) 성가신협, 6월 26일 (서울) 가톨릭중앙신협을 시작으로 충남에서는 1964년 5월 19일 예산신협이 최초로 설립되어 당시 사회문제였던 고리채 추방과 절대빈곤 탈출을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회적금융(포용금융, 호혜금융)을 실천해왔다. 한국 신협은 1960년 첫 해 3개 신협, 조합원 365명, 자산 9만 4천원으로 시작하여 2024년말 기준 전국 866개 신협(충남 52개), 조합원 670만명(충남 36만명), 자산 153조원(충남 7.2조원)으로 성장하였다.

2. 신협의 사회적금융 추진현황

신협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즈음한 2013년부터 선배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협동조합 지원과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2016년 이전에는 지역 신협의

지역내 협동조합 네트워크 참여, 신생 협동조합에 대한 사무공간제공, 판로 및 운영지원 등 비금융지원 위주로 전개되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대출상품인 '상생협력대출'출시, 2018년 신협사회적경제지원기금조성 및 사회적금융 거점신협 제도 도입(현재 61개 신협), 2019년 예금액의 1%를 사회적경제기업을 후원하는 '신협사회적예탁금' 출시, 경기도 등 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협약을 통한 자금공급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신협은 2016.7월부터 2025년 5월말까지 1,109개 기업에게 총 2,066억의 대출을 공급하였으며, 2019년 이후 3개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연계하여 저리·장기자금을 공급하였다(세부현황은 아래 표 참조). 특히, 충남도와의 협약을 통해 이차보전, 신용대출 일부 손실보전(2024년 취급분까지)외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여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122개 기업을 대상으로 86억원을 공급하였다.

또한, 신협은 2025년 5월 충남도 소재 50개 기업에게 '신협 얼마에요' 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세무회계는 물론 조합원출자금 관리, 급여·노무관리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신협'라이프 온'앱을 통해 금융업무와 직거래장터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3. 신협의 사회적금융 공급에 대한 평가

첫째, 신협은 협동조합 원칙에 충실한 사회적

◆ 신협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공급현황

	지역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5	누적	구성비
대출금액	전국	970	3,954	7,694	24,529	45,316	47,619	26,360	23,851	17,666	8,660	206,618	100.0
	경기 협약	-	-	-	2,696	12,579	7,461	4,259	7,066	7,511	4,222	45,794	22.2
	충남 협약	**-**	**-**	**-**	**-**	**2,482**	**2,205**	**855**	**1,860**	**860**	**360**	**8,622**	**4.2**
	경남 협약	-	-	-	-	-	300	804	438	90	-	1,632	0.8
	협약대출합계	-	-	-	2,696	15,061	9,966	5,918	9,364	8,461	4,582	56,048	27.1
	전국대비 비중	-	-	-	11.0	33.2	20.9	22.7	39.3	47.9	52.9	27.1	
담보유무	신용	290	2,098	3,588	12,571	23,946	12,883	8,824	5,662	4,585	1,580	76,027	36.8
	담보	680	1,856	4,106	11,958	21,370	34,736	17,536	18,189	13,081	7,080	130,592	63.2
	신용비율	29.9	53.1	46.6	51.2	52.8	27.1	33.5	23.7	26.0	18.2	36.8	

금융을 추진하여 왔다. ①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비중에 있어 신협의 협동조합 대출비중은 60%인 반면, 시중은행의 협동조합 대출 비중은 17.8%에 불과하다(2021.9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②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신협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구조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로 36.8%를 취급한 반면, 시중은행의 경우 안전한 보증서 담보대출이 90%를 차지한다.

둘째, 신협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응하여 업종별 연합조직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후위기관련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 270억(157건), 공동육아협동조합 89억(46건), 고령화와 관련 의료복지사협 85억(74건), 돌봄서비스 76억(45건), 친환경 먹거리 생협 75억(73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주택 70억(48건)등이다.

셋째, 신협은 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신용대출도 취급하고 있다.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자금 지원대출 43억(223건), 예술인협동조합 조합원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1.7억(58건) 등을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의 68%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불가피하면서도 매우 아쉽다. 그래서 충남도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 협약대출이 지방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일깨워주는 지점이다.

다섯째, 대체로 신협과 지역별 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 당사자 모두) 또는 민간중개기관과의 협력은 아쉽게도 부진하였다. 지역사회내에서 개별 신협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시군별 네트워크 조직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드물었다.

여섯째, 사회적경제조직을 후원하는 연대저축상품인 신협사회적예탁금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진하였다. 2019년 7월부터 2025.5월까지 총 6,883건 407억원이 조성되어 후원재원(예금액의 1%)인 4억이 아니라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실제로 1.2억원만 집행되었다.

4.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협의 역할

신협은 이제 지역사회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동조합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관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실천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신협은 금융/비금융지원*을 포괄하는 관계지향/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지원 및 상호이용을 통한 상생 발전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에서는 1 신협 1 협동조합 결연사업, 협동조합 상생 성장 어부바 프로젝트(공모)를 통한 사업비 지원을 계속 권장할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 이슈에 대응하는 에너지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시설자금, 통합돌봄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의료, 돌봄), 양극화 완화를 위한 택시협동조합 조합원 신용대출 외에 인수금융지원, 주거복지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자 대출 및 입주자(청년) 자산형성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셋째, 사회연대저축상품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후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신협사회적예탁금(예금액의 1% 기부)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연합조직과의 공동마케팅, 예금자의 기부처 및 기부금액에 대한 선택권 확대, 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령사항)를 입법건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넷째, 민간차원 사회적금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신협은 중간지원조직,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은 경영지원 및 자본조달(창업, 성장)지원에 대한 역할분담 등 협력체계로 신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다섯째, 신협의 사회적경제기업 등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신협법 개정사항)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중에서 신협만이 다른 법인 출자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신협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자로 참여시 협동조합간 경제적 연대 구축 등 가치기반 신협의 사회적 역할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고령화에 대응하여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 돌봄, 먹거리, 주거, 금융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참여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조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협은 사람중심의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이용자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신협과 사회적경제기업간의 관계형성 및 신뢰구축에는 상당기간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사회적경제기업도 법인 조합원으로 신협의 사업을 적극 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필요와 열망을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면서 신협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상생·발전한다면 신협의 사회적금융은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2025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하반기 주요사업 안내

사업명	장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찾아가는 진입 교육 및 컨설팅	미정	상시					
내방상담의 날	혁신타운	상시					
제2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고설명회	혁신타운(미정)	●	●				
충남 마을기업 온라인 기획전	미정			●	●	●	●
마을기업 오프라인 기획전	독립기념관(예정)				●		
S-메트로컬마켓	서울 역사(미정)				●	●	
제3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설명회	혁신타운(미정)					●	
신규 마을기업 지정 공고설명회	혁신타운(미정)	하반기 중					
2025 다시 만난 충남 사회적경제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팝업전시>	혁신타운 1층	상시					
25년 충남사회적경제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프로그램	혁신타운	●	●	●	●	●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고도화 지원사업		●	●	●	●	●	●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충남과 청양이 함께하는 「으라차차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혁신타운	●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전시(사라지지 않도록 순환으로)	혁신타운 1층	상시					
투어 프로그램 운영(혁신타운 투어프로그램)	미정	상시					
혁신타운 입주기업 특화교육 4회 예정	혁신타운	7월~10월 중					
혁신타운 연계 포럼 진행	미정					●	
사회적경제 역량강화교육 (소셜리더스)	혁신타운 & BCPF콘텐츠학교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미정			●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교육	교육 신청 장소	7월~11월 중					
기타 기획 교육	혁신타운	7월 ~ 11월 중					
사회성과 고도화	-	7월 ~ 11월 중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킹 데이 운영	혁신타운	7월 ~ 11월 중					
독립기념관 판매 부스 운영	독립기념관					●	